**Question 3 분석결과**

**텍스트, 스크린샷, 도표, 라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위 그래프는 2002년부터 2022년까지 4년 간격으로 제주도 내 전체 남녀 인구(서귀포시와 제주시의 인구를 합한 값)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제주도에는 여성의 비율이 더 높다는 속설이 맞는지에 대해 시각화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제주도 내의 남녀 비율을 우선 연도별로 시각화해 보았다.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제주도 내의 남녀 인구가 꾸준히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남녀 인구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남성의 비율이 더 높은 것(2010, 2014, 2018, 2022년의 데이터를 보면, 여성의 데이터보다 더 높게 나타나 있다)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2002년은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소폭 낮았고, 2006년은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실제 통계치를 통해 수치적으로 확인해보면, 2022년의 제주도 내 남성 인구는 352,303명, 2002년의 제주도 내 남성 인구는 274,579명이다. 2022년의 제주도 내 여성 인구는 347,448명, 2002년의 제주도 내 여성 인구는 277,731명이다. 2002년에 비해 2022년에 남성과 여성은 각각 77,724명, 69,717명 증가했다. 이를 통해선, 지난 20년 간 남녀 인구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인구 증가율이 여성의 인구 증가율보다 약 1.1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2년부터 2022년까지의 지난 20년의 데이터를 보았을 때(2023년 전체의 데이터는 2023년이 아직 다 지나지 않았으므로 존재하지 않는다), 제주도에는 여성의 비율이 더 높다는 속설은 거짓이라 판단된다. 오히려, 작년 2022년 기준, 남성이 여성에 비해 4855명 많다. 심지어, 2018년엔 남성이 여성에 비해 7220명이 많다. (2018년 기준 남성 인구: 349,626명 / 여성 인구: 342,406명)